

# 전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다.

글·사진 | 고은영

그날 그 친구는 흥분하고 있었다. 평범한 아이였다. 성적도 보통, 인문도 보통, 키는 작은 편...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 그 친구가 흥분한 이유는, 내가 보기엔, 아주 작았다. 영어 선생님이 본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점이였다. 한번에 60명이 넘는 중학교 시절, 담임 교사가 아니고서는 자극히 평범한 본인의 이름을 외출 리 없었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친구에게는 이름을 불러준 것이 신선한 충격이고 기쁨이 됐다. 기억한다. 그 후로 그 친구가 그 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디테어린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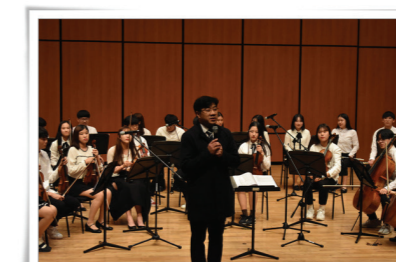
## 도서관이 나를 깨우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 중 하나이다. 아침 7시에 개방하는 도서관은 아침식사 후 독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 북모임 프로그램은 권장 독서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3년간 70권 이상 책을 읽어야 하는 독서 인증제도 실시 중이다. 지난 2016년에는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활용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올해 5월 편백나무로 만든 도서열람실을 확장하고 매년 2천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책정했다. 면적은 1인1실로 600석이 넘는 좌석이다.

## 김포외고만의 활동

독서 후 이어지는 자기주도학습 시간에는 전교생이 한자능력자검 4급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한자능력개발원으로부터 한자능력자검검정 시험 교재를 지원받았다. 한자 공부에 어려움을 항상 시달린 분 아니라 좋은 경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매주 전체 조회 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원어민 교사의 스피치와 학생들의 통역 활동을 통해 외국어 활용 기회를 늘리고 있다. 원어민 교사들과 학생들이



## 영사를 만나다

지속적인 영사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 하도록 돕는다. 최태성 역사강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경환 목사, 올림피아드 수상 금메달리스트 2관왕 디트리히 선수, 박지혜 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 등 각계 각층의 영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은 바 있다. 표창원 국회의원, 세계 최대교육기관인 EF 아시아 대표 아이리스 호만, 사회학자 김진호 성공회대 교수, 김정덕 김포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방문하였다. 조규성 교수, 외교부 훈장식 국제법규과장, 유르겐 뮐러 박사 등의 강연도 있었다. 그 외 최승후 전국한자지도협의회 정책국장, 이대부고 박권우 입시전략실장도 초청, 학년별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김포외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는 퓌 서비스 관현악법의 저자 유주환 작곡가에게 지도를 받고 있다. 겨울방학에는 'GFL 윈터 스타 음악캠프'를 열어 본교 희망 학생들이 유주환 교수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요. 그래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가 하는 모든 것을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교사진과 시설을 갖춘 학교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고1이면 고1처럼 학생과 같이 생활해주시는 단면 아이들도 힘들 수 있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길 것입니다.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믿고 따라주길 바랍니다. 교사들 모두 학생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전공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용적인 것들을 찾아 의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며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 맛으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쉽게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성을 부르다 정말 친분이 깊어질 때 이름을 부른다. 아무하고나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들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정이 깊은 민족이다. 이름을 부르며 정을 나눈다.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학교가 가능한가. 그만큼 애정이 깊다는 뜻이다. 북에서 지나치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학교장의 음성이 부드럽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것은 구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것이다. ☺

## 김포외고의 설립

김포외고는 전병두 이사장의 '청조' '봉사' '실천'이라는 이념 하에 세워진 학교다.(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37, 학교장 김수상)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특히 앞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김포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했다. 2006년 3월 대망의 첫 입학식을 갖는다. 6.25 시절 공부를 끝까지 못하고 생활고로 생업에 뛰어들면서 공부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학교를 설립하려 할 때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김포외고를 세우게 된다. 못 다한 꿈을 채우고 싶은 마음과 함께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자 김포시 유일의 특목고 '김포외고'를 설립했다.

## 마음이 담긴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급식사 외출 및 입실시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문자가 전송되도록 했다. 자녀를 맡겨 놓은 부모들의 마음을 위한 배려이다.

방학 기간을 이용 매학기 소독 및 방제 작업을 하며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세탁건담이 따로 있으며 방마다 샤워 시설과 비데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학년 4인 1실, 2학년 3인 1실, 3학년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남녀 급식사를 분리하였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밥은 참 중요하다. 매일 오늘은 뭘 먹지 궁금한 학생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저염 건강식은 기본이고 학생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다양한 메뉴를 개발한다. 매일 1회 '생일 데이'를 실시, 생일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 식단도 제공한다. 아침식사를 한식과 양식 중 선택하게 함으로 입맛 없는 학생들이 아침을 맛있게 먹도록 마음을 쓴다. 아침점심을 식당에서 실시하면서 전교생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어졌다. 아침을 거르고 패스트 푸드로 한끼를 때우는 많은 타 학교 학생들이 갖지 못한 복지다. 급식에 특별히 신경 쓰는 학교장의 배려로 물러 토스터기를 도입하고 식탁 및 의자를 교체했으며 영양사를 증원하여 식당과 식단 개선에 힘써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식사시간에 흐르는 모차르트의 밝은 음악도 즐거운 식사 시간과 더불어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갖게 하는 이 학교만의 노하우이다. 1인 1석이 가능한 900석의 넓은 식당은 예이다.

## 기숙형 학교

외동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이기심도 증가하고 있다. 기숙형 학교는 이런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김포외고만이 줄 수 다양한 장점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있다. 학생들로 구성된 급식사 자치위원회는 급식사 생활 규칙을 학생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자치 활동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게 함으로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있다. 급식사의 기본은 안전이다. 올해 3월 전자출결관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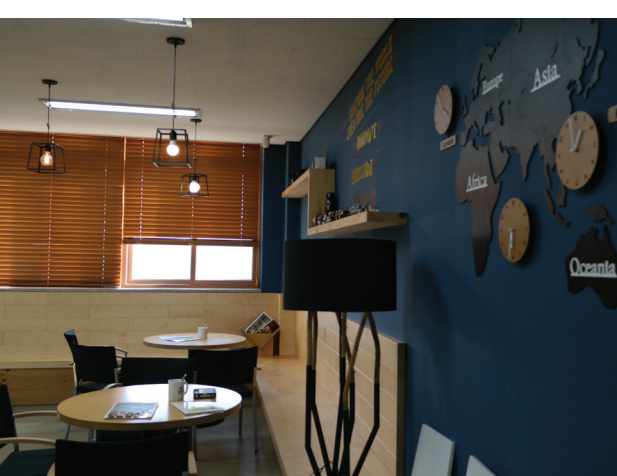
1:1 대화 시간을 배정하는 등 실제적인 외국어 교육도 강화중이다. 월요일 아침 조회를 통해 인성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의례를 하면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실시함으로써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강조하는 것은 학교장이 가진 철학이다.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해남이 학교와 민통선 교육 봉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에게 학업을 지도함으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됐다. 이는 창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수상했다. 이외 중동도서관 영어책 읽어주기, 초등학생 영어캠프 지원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개국 초등 학교 학생들의 학교 방문 시, 홍보대사 학생들이 영어

로 학교 투어 안내를 했다. 외고의 특징을 잘 살린 재능기부인 셈이다.

작년 5월 정서함양을 위해 학교 둘레길과 학교 정원의 '미러를 파크'를 조성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산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미러를 파크는 LED 등을 설치한 학교 운동장과 더불어 야간 산책이 가능한 공간이다. 환해아 아이들도 환해한다는 학교장의 마음이 담겨있다.

올해부터는 1교시 시작 전 명상시간을 갖고, 방과 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1인 1기 예능활동 시간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겨울방학을 앞두고 신학년, 신담임을 발표함으로 타 학교보다 두 달 앞서가는 신 학년 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성실한 아이들, 인성이 갖춰질 수 있는 아이들, 봉사 가능한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면접 시 인성이 좋지 않으면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삶이란 더불어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를 통해 본인들이 잘하는 재능을 남에게 나눠주고 함께 힘을 깨닫게 해주고 있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

